

무용에서 관찰의 상호성 연구

*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지각의 커뮤니케이션
	III. 관찰의 자발성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2.02.

논문심사일 : 2022.02.05.

게재확정일 : 2022.03.03.

A study on the reciprocity of observation in dance

Han, Hea-ree · Kyungsoo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at has understood both creator and appreciator as observers, the reciprocity of observation could be presented in the concept and logic as follows.

- The dance activates the evolutionary results based on oneself. The spontaneity of dance observation includes meanings such as sensing (body, individuality, & independence), perceiving (self-awareness, self-esteem, etc.), and viewing in another perspective (putting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 and transcends differences of roles between the creator and the appreciator in the area of dance perception.
- The contemporary dance that is presented by new dance facilitators handles the ideal society beyond the current society by using the tools such as communications of the body, senses, and perception based on the originality of independent individuals.
- The process of observation in dance spontaneously realizes ego, so a human being integrates oneself with the world (human & nature as well as oneself) again.

<key words> contemporary dance, reciprocity of observation, communications, integrate

<주요어> 동시대 무용, 관찰의 상호성, 커뮤니케이션, 통합

동시대(현대)¹⁾ 예술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이 시간과 관련되며 동시에 역사적인 조건에서 정의한다. 무용도 예외일 수 없다. 전례 없이 길어진 평균수명은 출생시기가 각각인 개인들이 다른 기억과 기준을 지니고 지구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용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한정되었던 무용 연구의 시기를 지나, 현대의 무용은 의미를 발견하는 관찰자의 커뮤니케이션²⁾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창작과 감상의 주체로 이분화 되었던 무용 연구가 인간의 내적 능력까지 창작 주체와 감상 주체로 분리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구별하는 연구 경계를, 인간의 통합성으로 초월하게 해주었다. 무용 창작이 인지와 의지의 자발적 행위라면 무용 감상은 지각의 체험과 구별의 자발적 행위이다. 그리고 무용에서 자발적 행위의 주체와 인지와 감각적 지각의 사고 주체는 몸으로 통합된다.

본 연구는 무용 창작과 무용 감상의 구별 구조에서 창작 주체와 감상 주체의 전통적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 방식을 넘어, 창작과 감상의 대상인 무용의 형식을 스스로 만드는 관찰자로 통합하여 무용이 형식(혹은 체제)화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구조로 진행하였다. 인지와 지각의 주체를 독립성(혹은 행위로서의 자아인식)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체(주체)들의 연속적인 관찰과정에서의 무용은 지각의 커뮤니케이션(혹은 통보와 정보의 이해)의 구조에서 생성된다는 전제에서, 무용 창작(생산)과 무용 감상(수용)에서 관찰의 상호성 제시를 위한 본 연구의 논리는, 무용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지각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무용 창작과 감상의 자발적 참여자의 관찰(자아 인식 혹은 자존감)을 탐구하는 순서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무용의 자기 성찰 기능과 구조”(2020), “무용에서 감지의 기능과 담화화 과정 연구”(2019), “무용의 의사소통 기능연구”(2018), “동시대 무용의 가치 전도와 가치 창출”(2017), “무용체험과 인식과의 관계”(2014)가 있다.

1) “조형예술의 이론과 역사를 보면, 오늘날 근대 예술(moderne kunst)과 현대예술(zeigenossische kunst, contemporary art)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자는 주장이 발견 된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 38).

2)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생명체나 의식체계에서 다른 체계에 ‘전달’한다는 개념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의미의 매체 내에서 형식을 형성하는 독자적인 방식이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 54).

II / 지각의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심리적 능력들을 위계화 시켜 구축하며 판단력과 이성의 뛰어난 성찰능력을 전제했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각”, 즉 지각을 상대적으로 저 평가했던 전통의 골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예술작품과 다른 대상 사이에 있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차이를 거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이 평가절하 되어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을 꺼린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 47).

이성에 대한 감각적 지각의 평가절하는 곧, 정신에 대한 몸의 평가절하로 연결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몸에 대한 인식은 감각 주체로서의 몸, 사회적 지위가 새겨진 몸 그리고 자기표현 매체로서의 몸 등으로 정의는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는 몸을 단지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다(Martin, D., 2019, 배명자 역, 2020:206).

몸으로 포착하는 것이 감각이라면 포착된 것을 무용으로 형성하는 것이 지각이며, 개별적 지각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용의 형식을 완성한다. 감각의 주체인 인간의 몸은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외부화 하는 구성능력을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으며, 무용은 독립적 개인이 감각으로 지각한 상상된 세계의 제시이다. 그리고 제시의 방식이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이므로 무용은 지각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지각은 감각과 인식의 중간 단계로 여겨진다”(한혜리, 2014:69)는 논리에서 감각은 무용 인식의 첫 단계이다. 무용은 직관의 형식에서 상상된 세계들을 생활세계 내부로 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고, 이 과정에서 무용을 촉발하는 것이 지각이다. 그리고 무용을 촉발하는 지각 상태 이전의 감각을 실행하는 몸도 동시에 지각되어지는데 이 지각이 자기 관찰의 성격을 띤다. 즉,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 이해되고 판단하며 구별한다(혹은 다른 것과 차이를 발견한다).

의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지각 가능한 세계 내에서 발생한다. 커뮤니케이션 참여(와 따라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는 이것이 전제될 수 있을 때

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있는 곳을 확인하려면, 지각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지각은 우리 몸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지각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는 의식이 자기지시와 타자지시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 함께 지각되어야 한다. 의식은 자기지시와 타자지시를 구별할 능력 또는 노발리스(Novalis)의 표현으로 “영혼의 안식처”를 규정할 능력을 지키려면 자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신의 신체가 세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각은 세계를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며 빈틈없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역, 2014:62).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구별하는 지각은 개별적이고 독창적 영역이지만, 성장 과정의 사회 환경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은 상황과 상대방에 달렸다. 부르디외는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수용 감각’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기본으로 여겼다”(Märting, D., 2019, 배명자 역, 2020:247)는 학설을 기저로 역사적 조건에서 인간의 모든 결정 그리고 행동 및 행위 습관이 기록된 곳이 몸이다. 몸이 하는 감각과 지각은 사회를 통해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창성과 개별성을 인식하게 되며, 동시에 무용(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는 ‘문화적 궁합(cultural fit)³⁾을 경험하기도 한다. 몸을 통한 자아 인식이란 축적된 인류의 경험적 지식을 몸이 표상하는 것으로 관찰⁴⁾하는 과정이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는 무용의 요구이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용 형식으로 관찰자 개인들이 곧 무용 형식을 결정한다. 무용을 형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용과 기대간의 진동을 비판적 사고로 확인하는 자아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자아 관찰의 시간이다. 감각 주체로서의 자아⁵⁾가 지각한 형상인 무용은, 의식을 표현하는 지속적 행위이거나, 완성되어 고정된 표현된 작품이거나를 불문하고 지각의 주체인 관찰자는 무용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설정한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관찰(자기, 혹은 몸이 있는 곳)하지 않으면 무용은 그 무엇과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발성(관찰)의 발휘 없이는 그 어떤 이해와 판단(구별하기, 지각)도 불가능하다.

관찰 방식의 확정은 예술가 편에서는 그가 생성되는 예술작품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지를 명료화하는 방식으로만 이

3) “같은 과정과 같은 감정이 생기는 현상을 문화적 궁합(cultural fit)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궁합이 성과 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한다”(Märting, D., 2019, 배명자 역, 2020:266).

4) “구별을 근거로 어떤 것을 지칭함”(박여성, 이현역, 2014: 104).

5)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정신의 전체성인 인격을, 자기(self)와 생각, 감성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 주체인 자아(ego)로 구별하는 Jung, C.G.의 분석심리학 개념”(한해리, 2020:50).

루어질 수 있다. 이때 그는 모든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155).

결국 무용은 지각의 결과를 행위 혹은 형성물(작품)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 때의 무용 관찰은 구별이 없는 상태의 공간과 시간에 개별적 지각을 근거로 이전의 의미 없던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관찰 행위인 동시에 지각 주체인 자신의 창조적 행위가 무용으로 지칭되는 것을 생성한다.

무용 관찰의 불안전성 즉, 각 개별자들에게 의미의 차이는 자신과 본질적 차이를 배제하려는 주관적 관점 혹은 개별성(독창성)이 관찰의 불안전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의 불안전성은 무용 관찰의 상호성의 공동 특성이다.

무용 관찰의 상호성은 무용이 독립적 전문 무용인의 창작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모색을 추구하는 관찰자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에서 창작과 감상은 구별(지각)을 형식으로 사용하는 관찰자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Luhmann, N.(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 25)의 관찰 구조의 논리를 적용하면 독립적(독창적) 개인의 무용 창작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한 구별(의미 창출 혹은 부여)을 실행한 후, 생성되는 무용이 통보하는 정보를 이해한 관찰자(창작자, 생산자)로서 다른 관찰자(감상자, 소비자)들의 이해와 판단을 고려하는 관찰의 과정을 연속하면서 무용을 구성한다. 관찰과정의 연속성에는 참여자(감상자)의 지각에 따른 체험과 행위 형식의 개별성이 전제되어 있다.

무용창작 활동은 인지적(판단적, 선택적) 참여와 의지의 참여 사이의 진동의 계속으로 진행된다. 반면, 완성되어 정형화되거나 체계화된 무용들은 감상자나 참여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통보하며, 참여자(감상자)들은 창작자 혹은 체제속의 무용의 방향이 통보하려는 그 정보를 그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참여하는 매순간 다른 이해에 이른다. 무용을 포함하여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예술체계는 공간과 시간을 출발 매체로 삼아 진화해 나간다.

그 이전의 예술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한 뒤 단계에 이르렀고, 구축된 순환경로에 근거해서 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제도화 된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 역, 2014:27).

무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과정이며, 이런 맥락에서 무용은 자기 생산 체계이다. 참신성과 독창성이라는 고유의 기준에 의존하는 무용

은 관찰과정에서 자신을 특수화 시키는 가운데 자기기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생성시키며 자기 재생산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무용은 지각을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생성되고 존속할 수 있다,

개인은 타인의 내부에서 지각하거나 사고할 수 없으며, 자기의 작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동으로 인식될 작동을 생산할 수 없다는 논리 구조에서, 무용의 독창성과 개별성은 지각과 관찰의 과정에서 증명된다. 즉,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의 두 영역의 관찰자에 의해 무용 형식 - 창작과 감상, 생산과 소비 혹은 향유 -이 구별 된다. 따라서 지각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관찰자는 곧 무용 형식이 된다.

무용은 자신을 근거로 진화론적 결과를 작동시키며, 무용 관찰의 자발성은 감각하기(몸, 개별성, 독립성), 지각하기(자아인식, 자아 존중감 등),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易地思之)등의 의미를 함유하며, 무용 인식의 영역에서 창작자와 감상자의 역할 차이를 초월한다.

관찰 체계에서 무용이 혼용한 새로운 전문가(facilitator)⁶⁾들도 출현하였다. 이런 새로운 무용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지속되는 동시대 무용은, 지난 세기 무용이 창작과 감상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작용을 연구하는 시기에 무용을 통해 사회가 어떠한가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독립적 개인의 독창성(개별성)⁷⁾이 몸과 감각 및 지각의 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사회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다룬다.

⁶⁾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논의가 용이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 주는 이를 말하며 그러한 직업은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부른다(Hertz, N.,2020, 홍정인 역, 2021:378).

⁷⁾ 여기서 독창성이란 것은 어떤 사상이 전에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상이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자신의 활동의 결과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의 사상이라는 뜻이다(Fromm E.,1941, 김석희 역, 2020:261).

III / 관찰의 자발성

개인들은 자기관찰자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관찰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개별화된다. 우리는 짐멜(Simmel)이나 미드나 사르트르(Sartre)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비로소 정체성을 얻지만, 정체성을 얻는 것은 그들이 관찰되는 것을 관찰할 때에만 발생한다고도 말할 수도 있다. 개인들이 예술에 참여하면(필연적이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은 일로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 관찰자로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즉 개인으로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Luhmann N., 1995, 박여성, 이현역, 2014:193).

무용이 관찰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는 것은, 비개연적인 것을 지각하는 것에 관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용에서의 관찰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보다 더 많은 자기관찰의 기회가 존재한다. 자기관찰의 과정에서 자신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하는 역사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 역사 과정에서 발달시킨 잠재력, 예를 들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감정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을 구별하는 능력을 인식하는 때이다. 무용을 통한 자아 인식은 효력이 저장되지 않고 관찰의 순간에만 효력이 확인되는 운동적 특성이 있다⁸⁾. 유일함, 진실함, 선함에 대한 자기의식이나 무용 형식(관찰자)의 독창성(유일함)을 검증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무용에서의 관찰은 자기관찰로 기능하다.

관찰의 능동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만들고 자기관찰로 세계에 관여하는 무용의 핵심은 다의성과 관찰의 상호성이다. 일시적 관찰이 무용 창작의 영역이라면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연속되는 관찰은 감상이다. 무용은 한번 보는 것으로 무용작품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것은 일종의 자극으로 안정된 정신체계에 교란을 준다. 관찰은 무용에 섬세하게 몰입하고 작품에 몰두하게 된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정보의 통보가 이해될 때만이 발생하는데, 지각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보는 무용 형식으로 관찰자가 형성한다.

창작인(생산자)과 감상자(소비자, 향유자)들이 무용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방법은 관찰자로서가 유일하다. 그리고 무용 커뮤니케이션은 내재적으로 다의(polysemie)적 성향이 있다. 그것은 무용에서의 관찰은 능동성 즉 자발성이 필수요소로 개

⁸⁾ 스포츠과학자 위르겐 슈비어 Jürgen Schwier가 “운동은 예방적, 치료제로서 성공 보장이 없고 효력이 저장되지 않으며 오직 운동하는 순간에만 효력이 확인된다”(Märting, D., 2019, 배명자 역, 2020:221).

별성과 독창성이 지각에 깊이 관여하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무용(형식)은 느낄 수 있고 어떤 차이가 다른 것들과 구별을 확연하게 하는지 지각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일차적인 관찰자로 사용한다. 따라서 무용의 천재성은 자기의 몸이다, 관찰의 상호성에서 창작을 주도하는 관찰이 한번 실행되는 것인 반면 감상하는 관찰은 반복실행이 가능한 것을 차이로 제시할 수 있다.

무용 커뮤니케이션에 관찰자로서의 참여는 결국 독창적 개인의 지각과 관찰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개인과 개인의 차이, 즉 개인들 상호간의 구별이 독창성이라면 그 독창성은 창의적 사고의 자발적 실현 혹은 실천으로 발현된다. 개인의 정체성(혹은 인격)은 무용 지각과 관계가 있는데, 감각, 지각 등은 개체성의 표현이자 증거인 동시에 무용을 매개로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감정은 전반적으로 억압되어 있다. 창의적 사고가 - 다른 어떤 창의적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 감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감정 없이 생각하고 감정 없이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적인 태도가 되어버렸다. 감정적인 것이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불균형한 것과 같은 뜻이 되어버렸다. 이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개인은 매우 약해졌다. 그의 생각은 빈곤해지고 단조로워졌다. 한편 감정은 완전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인격의 지적인 측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존재해야 한다. 그 결과는 값싸고 가식적인 감상성인데, 이 감상성을 가지고 영화와 대중가요는 감정에 굶주린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Fromm E., 1941, 김석희 역, 2020:264).

자발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개성의 발달을 억누르는 사회제도에서 인간의 내적 독립성과 개성 그리고 성정과 본래 모습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용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창작인(예술가)과 감상자(비예술인)의 엄격한 분리체계는 예술창작인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시대의 잔재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에서 자발성 배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사회제도나 교육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예술 관찰자와 같은 독창적인 정신 활동이 감정과 생각과 소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동시대 독창성의 개념은 활동의 결과로서의 독창성으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활동의 내면에는 '생각(혹은 사상)이 있다는 맥락에서 개별자들의 생각 혹은 사상을 의미한다.

무용 커뮤니케이션은 지각에 의존한다. 그리고 무용 커뮤니케이션이 사고의 진행을 동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반의 방식에 대한 유일하고 분명한 답안 제시는 어렵다. 무용을 포함한 모든 예술은 이성적 합의냐 이견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부담

없는 관계를 성립시킨다. 즉, 무용은 그 관계를 통해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외와 배타의 반대 개념으로 무용은 현 시대에 결여된 독창성, 자존감, 자아실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필요적 무용은 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로 다른 목적과 생각과 태도의 관찰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존속되고, 변형되고 때로는 폐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 형식의 기준이 되는 개별성은 합치점 없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의 필요, 공동의 결핍, 공동의 선동의 영역에서 언급된다.

자발적 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고독이나 무력함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강박적인 활동이 아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제시된 유형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하는 자동인형의 활동도 아니다. 자발적 활동은 자아의 자유로운 활동이고, 심리적으로는 그 낱말의 라틴어 어원인 'sponte'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 - 자신의 자유의지로 - 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활동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 지적, 감각적 경험과 인간의 의지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인격을 '이상'과 '본성'으로 나누지 않고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자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억누르지 않아야만, 자신에게 투명 해져야만, 삶이 다양한 영역들이 근본적으로 통합되어야만 자발적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romm E, 1941, 김석희 역, 2020:279).

자기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자발성은 말과 생각에 드러나고, 태도와 모습에 나타나는 감정에 드러난다. 무용을 새롭게 자발적으로 감지할 때, 자신이 생각한 결과로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정형화 되지 않은 감각적 쾌감을 느낄 때, 관찰자는 자발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찰과정에서 인식되면 인간의 삶은 달라진다는 기대가 공론화 되고 있다. 자발적인 활동은 자아를 자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다시 세계와 - 인간과 자연 및 자신과 - 통합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행동은 자아의 개별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자아와 결합시킨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소통(공유)하는 것은 자부심과 행복을 준다. 물론, 중요한 것은 활동 자체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개인이 자발적인 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하여 자신을 세계와 관련시키면, 고립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세계의 전체 중 일부가 된다. 자아실현은 개인의 독특성을 충분히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를 거치며 예술체계는 관찰과정에서 자신을 특수화 시키는 가운데 자기기술을 실행한다. 그리고 그 예술체계를 동시대 무용도 공유하고 있다.

“무용에서 관찰의 상호성 연구”는 무용이 창작과 감상의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연구되고 실행되는 시간동안 인간의 내적 능력도 창작 주체와 감상 주체로 분리 되었고 그 분리된 영역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창작자와 감상자 모두를 관찰자로 보는 Luhmann, N.(1995)의 예술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논리에서 유출된 무용에서 관찰의 상호성은 다음과 같다.

- 무용 관찰의 상호성은 무용이 독립적 전문 무용인의 창작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모색을 추구하는 관찰자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무용에서 창작과 감상은 구별(지각)을 형식으로 사용하는 관찰자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 무용 인식은 수용과 기대간의 진동을 비판적 사고로 확인하는 자아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자아 관찰의 시간이다. 감각 주체로서의 자아가 지각한 형상인 무용은, 의식의 표시인 지속적 행위이거나, 완성되어 고정된 표현된 작품이거나를 불문하고 지각의 주체인 관찰자는 무용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설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무용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무용 커뮤니케이션은 감각과 지각 즉 관찰의 과정에서 발현된다.
- 무용은 자신을 근거로 진화론적 결과를 작동시키며, 무용 관찰의 자발성은 감각하기(몸, 개별성, 독립성), 지각하기(자아인식, 자아 존중감 등),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易地思之)등의 의미를 함유하며, 무용 인식의 영역에서 창작자와 감상자의 역할 차이를 초월한다.
- 관찰 체계에서 무용이 훈육한 새로운 전문가(facilitator)들도 출현하였다.
- 동시대 무용은, 지난 세기 무용이 창작과 감상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작용을 연구 할 시기에 무용을 통해 사회가 어떠한가를 다루었던 것과 달리, 독립적 개인의 독창성(개별성)이 몸과 감각 및 지각의 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사회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다룬다.

- 무용을 새롭게 자발적으로 감지할 때, 자신이 생각한 결과로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정형화 되지 않은 감각적 쾌감을 느낄 때, 관찰자는 자발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찰과정에서 인식되면 인간의 삶은 달라진다. 자발적인 활동은 자아를 자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다시 세계와 - 인간과 자연 및 자신과 - 통합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한혜리(2020), “무용의 자기 성찰 기능과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47-59.
- _____(2019), “무용에서 감지의 기능과 담화화 과정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2)**, 63-74.
- _____(2018), “무용의 의사소통 기능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4)**, 31-44.
- _____(2017), “동시대 무용의 가치 전도와 가치 창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4)**, 65-78.
- _____(2014), “무용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2)**, 59-72.
- Fromm, E.(1941), *Escape from freedom*, 김석희(역, 2020),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휴머니스트.
- Märtin, D.(2019), *Habitus*, 배명자(역, 2020), **아비투스**, 파주: 다산초당.
- Luhmann, N.(1995), *Die kunst der gesellschaft*, 박여성, 이현(역, 2014), **예술세계 이론**, 파주: 한길사.
- Hertz, N.(2020), *The lonely century*, 홍정인(역, 2021), **고립의 시대**, 파주: 웅진 지식하우스.